

지평지성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한경BUSINESS 국제면 기고)

법무법인 지평지성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는 2010년 9월부터 경제주간지 '한경비즈니스' 국제 (Global) 면에 정기적으로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러시아, 일본, 브라질, 필리핀, 인도네시아, 미얀마, 태국, 호주 등 한국기업 및 자본의 진출이 활발한 해외 각국의 주목할 만한 동향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기고되는 내용은 지평지성 Global Business Newsletter에 모아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호주] 대형 자원 기업 이익의 30% 세금 부과

호주는 300개 이상의 광산에서 20가지가 넘는 종류의 광물이 생산되는 실로 축복받은 자원의 나라다. 석탄 및 철광석은 수출량이 세계 1, 2위를 기록하고 있고 광물 이외의 주요 에너지 자원도 풍부한 매장량을 자랑한다. 우리나라는 연간 전체 철광석 및 석탄 수입량의 70%, 30%를 호주에 의존하고 있으며 호주로서는 한국이 중국과 일본에 이어 3위 수출 대상국이기도 하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 담보대출) 부실 사태로 전 세계 국제금융 시장이 경색되고 글로벌 경기가 침체됐던 시기에도 국제 원자재 시장의 활황으로 호주 경제가 입은 타격은 실로 미미했으며 호주 경제는 지난 몇 년간 꾸준한 실질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경제 전망 보고서(Economic Outlook Report)'에 따르면 호주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이어질 것이며 이에 따라 호주 경제는 향후 2년 동안 3%에 가까운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중략)

임주영 법무법인 지평지성 호주변호사

- [제862호 한경비즈니스 인터넷 페이지](#)